

연중 제20주일

제1독서 : 예레38,4-6.8-10

제2독서 : 히브 12,1-4

복음 : 루가 12,49-53

순정이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루가12, 49a)

강론

방화자(放火者)이신 예수

한정현 신부 / 원평 천주교회

오늘 복음의 말씀은 사뭇 충격적이다.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루가 12, 49)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석가모니 부처의 ‘불타는 집(화택)의 비유’와 비교해 볼 때 더욱 충격적이다. 불경에 나오는 이 비유에는, 집이 불붙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이 불타는 줄도 모른 채, 놀이에 빠져서 불타는 집을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는 어린이가 등장한다. 불교에 따르면, 이 세상 자체가 불이 붙고 있는 하나의 미혹의 세계이며 결국 ‘불’이란, 인간이 거기에 빠져 들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또한 그리로부터 빠져 나와야 할 미혹과 미망을 상징할 뿐 아니라, 불을 지르는 ‘방화’ 내지는 불이 일어나도록 ‘빌미를 제공하는 일’ 자체가, 인간이 뿌리 채 뽑아야 할 일종의 ‘어리석음’인 것이다. 이런 불교적인 사상에 은연중 젖어 있는 우리 동양인에게 있어, ‘이 세상에 불이 타오르지 않는 일’ 자체를 오히려 통탄해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이 세상에 불을 지르는 ‘방화자’로 스스로 소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충격적이다 못해 우리를 당혹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그분의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어야 할 것인가?

성경에 있어 불은 하느님의 현존과 그분의 나타나심을 상징하며 아울러 심판과 정화를 상징한다. 따라서 불은, 인간이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그 어떤 것으로서 이제 인간은, 세상에 불을 지르는 ‘방화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놓으신 불길을 통과하면서 “자기 결단”과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의 쇄신” 및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의 변화”를 이루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놓으신 그 불길 한가운데를 끊임없이 지나는 ‘구도자’인 동시에,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불을 지르는 ‘방화자’이어야 하지 않을까?

소리

삭발 어머니

얼마 전 검찰이 ‘5·18’ 관련 조사를 마치고 피고 발자들에 대해 ‘공소권 없음’이라는 해피한(?) 결정으로 면죄부를 주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어머니들이 머리를 깎고 항의하는 사진을 본 적이 있다.

해방 50주년을 맞이하여 어느 신문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45년 이후 이 나라에서 발생한 가장 커다란 사건 중 1위는 ‘한국전쟁’이고, 그 다음이 ‘5·18 광주 민중항쟁’이었다고 한다. 두 사건은 우리 민족 내부의 일이었고, 불과 45년과 15년 전의 일이다. 그런데 남침과 무자비한 학살에 대해 ‘철천지원수’를 외치며 단죄한 ‘6·25’와 달리 ‘5·18’에 대한 검찰과 정부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것이다.

80년 5월 광주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면 감히 입에 올리기조차 버거운 ‘학살’에 대해 검찰은 ‘정치적 행위’라며,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사건으로 단정지었다. 검찰 본연의 임무는 둘째치고, 불과 15년 전에 있었던 ‘학살’에 대해 일반 국민의 인식이 너무도 멀리 떨어진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을 금할길 없다. 앞으로 이 나라의 역사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야 할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취한 권력은 ‘정치적 행위’이므로 범법이나 위법 또는 국가반란이나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ㄷ**

순정이 산책



성서교실 67

“그 애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곤경에 빠졌다.”(창세 42, 1~25)

요셉이 에집트의 최고 권력자가 되어 그곳 백성을 기아에서 구했다는 이야기가 끝나고 42장부터는 그 자신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극심한 가뭄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하여 에집트에 곡식을 사러 온 것이 계기가 되어 요셉은 형제들을 만나게 된다.

야콥은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들들에게 곡식을 사러 에집트에 가라고 명한다. 무기력하고 도전할 줄 모르는 아들들을 꾸짖는 야콥의 말투에서 그가 아직도 견제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야콥은 아들들을 에집트로 떠나 보내면서 막내 아들 베냐민만을 자기 곁에 남겨 둔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 라헬의 유일한 혈육인 베냐민을 요셉처럼 잃고 싶지 않은 생각에서이다.

형들은 에집트의 최고 통치권자가 된 요셉을 만나자마자 얼굴을 땅에 대고 큰 절을 올린다. 요셉이 어려서 꾸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다. 요셉은 형들을 보자 즉시 알아보면서도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남보듯 거칠게 대하며, 너희들은 에집트 국경의 허점을 정찰하러 온 간첩이 아니냐며 몰아 세운다. 그러자 형들은 평범한 가정의 한 가장에게 소속된 자녀들일 뿐임을 밝힌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자식입니다”라는 형들의 고백에서 저자는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히고 있다. 곧 대화의 상대인 형들과 요셉이 모두 야콥의 아들임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저자의 재치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동생 하나는 없어졌습니다”라는 형들의 말은 요셉에 대한 자신들의 범죄를 언급하기 위한 모호한 표현이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은 너희를 시험해 보겠다며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요구한다. 베냐민을 보고 싶은 원의가 깔려있는 것이다. “파라오가 살아 있는 한”이라는 말은 에집트의 문헌에 자주 나오는 연설용어이다. 요셉은 형들을 모두 감옥에 가둔다.

사흘이 지난 후 요셉은 형들을 모두 감옥에서 불러내어 자신도 하느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임을 고백한다. 그리고 요셉이 다시 내거는 조건은 대표적인 사람만 인질로 남으라는 것이다. 그리고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을 내린다.



에집트에 곡식을 사러 온 요셉의 형제들

막내동생을 어떻게 해서든 데려오라는 요셉의 명령은 형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를 기억나게 해 준다. “그렇게 가슴 아프게 애원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못 들은 체 했다”는 사실은 37장의 요셉이 팔려가는 대목에 전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형들의 뉘우침을 표현하기 위해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통역이 나오는데 이는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요셉은 자신의 에집트 말을 통역을 통해서 전달하지만 형들이 하는 히브리 말은 직접 알아 듣는다. 르우벤은 형제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요셉에게 못된 것을 한 것을 비난한다. 형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요셉은 감정이 북받쳐올라 그들 앞에서 물러나 온다.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감동한 것이다. 요셉은 감정을 자제하고 둘째 아들 시므온을 묶는다. 만형 르우벤은 자신을 살려 주려 했기 때문에 책임을 면하고 그의 뒤를 이은 두 번째 장형이 인질로 잡힌 것이다.

이 과의 이야기에서 요셉의 신중하고 지성적인 태도와 형들의 참회하는 모습이 돋보인다. 요셉은 자신을 팔아 버린 형들에 대해 빼어 사무친 원한을 가질 법도 한데 마음 안에 일말의 앙심도 남겨 두지 않고 있다. 반면 형들은 동생에게 한 못된 짓 때문에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맞은 자는 발 뺀고 잘 수 있으나 때린 자는 발 뺀고 잠들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게 해 준다.

<p>LG(금성)에어콘 총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어컨, 향온습기, 공기정화기 · 온풍기, 대형냉장고, 중앙집중식냉, 난방 <p>원종삼(발리바) · 원승연(도미고)</p> <p>삼화공조 ☎(0652)251-0190~2 휴대폰 011-653-2346</p>	<p>PUMA 효지점</p> <p>스포츠 의류, 신발류 가방, 수영복</p> <p>장 재 식(베 드 로) 원 숙 영(가타리나)</p> <p>효자 성당 ↔ 크리스탈 불링장 ☎ 225-9112</p>	<p>코아 삼익피아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가 6개월 무이자 할부판매 · 각종 신용카드 현금가 할부판매 · 일반악기 전품목 할부판매 및 도소매 · 철저한 책임관리 및 사후 서비스 <p>☎ 86-1181.80-1111(교) 호출기 015-670-1651</p>	<p>최첨단 부엌가구 ENEX 전북종합전시장</p> <p>박 영 근(공사가) 장 정 신(젼 마)</p> <p>전주시 덕진구청 앞 ☎ 75-0523~4 FAX (0652)75-0524</p>
---	--	--	--

교리상식 ㉑

교회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천주교회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아름다운 믿음을 간직하셨던 마리아를 공경하고, 그 신앙심을 본받고자 노력한다. 마리아께서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 있어서 특별한 참여를 하신 분이시다. 마리아께서는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의 힘으로 잉태하셨고, 그 아들 예수님을 낳으신 분이시기에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친이 되신다.

마리아는 예수의 육신적 어머니로서 인간 예수로 낳으시고 기르셨던 평범한 어머니이실 뿐 아니라 예수를 구세주(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었던 신앙인인 동시에 첫 그리스도인이 되신다. 마리아는 인간 예수의 어머니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시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귀감이 되시는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는 신앙인들의 어머니시고 교회의 모델이 되시는 것이다. 또한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이시며 동시에 우리들의 어머니가 되신다.

마리아는 인간 예수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하셨으며, 예수께서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실 때 그 고통스러운 운명을 지켜보셨다. 이때 예수께서는 십자가 아래 계시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는 “이분이 네 어머니이시다”(요한 19, 26-27). 이 말씀과 함께 제자 요한은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셨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들로 삼아 신앙적 모범과 가르침, 그리고 전도생활에 필요한 물질적 영신적 도움을 베푸셨다. 그래서 마리아는 우리들의 어머니가 되신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마리아를 또한 성모님이라고 존칭하여 부른다. 마리아는 예수의 인간적인 어머니라는 점에서도 ‘성모님’이 되시며, 그분의 생애를 통한 희생적 삶을 통해서도 마땅히 거룩하신 어머니로서의 성모님이 되시는 것이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어머니’가 되신다. 그리하여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회 성립 초창기부터 성모님에 대한 신심을 가져왔으며, 성모님은 그 자녀들인 우리 인간들의 성화를 위해 기도 하시고 그리스도께 중재하시며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성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각별한 애정을 보이며 성모 찬송(Ave Maria)을 노래하는 것이다.

교 구 소 식

1. 교구청 직원 및 본당 사무장(원) 피정 : 8월 21일~23일 나바위 피정의 집
2. 교구청 회계감사 : 8월 24일~25일 교구청
3. 혼인강좌 : 8월 27일(일) 오전9시30분 가톨릭센터 회비-각10,000원
4. 교도소 사목 후원회 월례미사 : 8월 21일(월) 오전10시30분 가톨릭센터
5. 전주교구 신부님들의 부모님 모임 : 8월 28일(월) 오후2시 전동성당 교육관
6. 은혜의 밤 철야기도회 : 8월 25일(금) 밤11시 전동성당

※ 축! 영명 : 21일(성비오) 문선구 신부님
24일(성바르톨로메오) 문정현 신부님

요심이 (1146) 김병오



제1기 자원봉사자 학교

- 일시 : 9.4~11.6(매주 월요일 오후 2시~4시)
- 장소 : 가톨릭센터 3층 회의실
- 대상 :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는 모든 성인
- 접수 : 8.1~8.20(수강비 2만원)
천주교 전주교구 사회복지회 ☎ (0652) 84-5290

치질전문치료 서울의원

치질 레이저로 무통치료 및 무통수술
원장 이상재(베네딕도)
덕진광장 앞
☎ (0652) 75-0550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성소 모임

초대 교회 공동체의 정신으로 수도생활을 하고자 하는 고졸 이상의 미혼여성
· 일시 : 8월 27일 오후 2시~5시
· 장소 : 삼랑진본원 (0527) 52-4241
· 준비물 : 신구약 합본 성서

(주) 한국삼베 전복총판

최고급 전복수육/Q마크회덕원단체품
삼베양말/부족에방,삼베이불

이경근(안토니오) 임경란(수산나)

전주 서부 우회도로 천하장사 옆
☎ (0652) 212-6639, 7046
호출기 012-682-6631

이전 코아 에스에스 패션

· 로가디스, 이브생로랑, 위크엔드
· 버킹검, 아스트라, 빌트모아
· 런던포그, 크레센도, 포넨모아
정수천(시몬) 강숙기(짓다)
코아백화점 4층
☎ 86-2884, 80-1404

동서로 삼익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오ργαν, 관현악기
· 각종 수입악기 판매
· 악기구입, 음악교육 및 연주 지도 담당
동서 관동로 다가교 입구
김태우(알폰소) · 황진숙(안젤라)
☎ 88-7717~8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 · 드레스마춤 대여 최윤경(유리안나)

미용실 · 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 841-2496, 855-8653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 연중 제20주일
- ◎ 날마다 그 날 성서구절을 한 번 더 읽읍시다!
- 1. 반희장 경질: 인후 5만 송순자(골라라)→경숙자(무실라)
수고하시겠습니다.
- 2. 본당 신부님 휴가: 22~25일
※ 본당에서 미사는 없습니다.
- 3. 이 수녀님 휴가: 21~26일
- 4. 사무장(원) 피정: 21~23일 나바위 피정의 집
- 5. 교리교사 피정: 26~27일 나바위 피정의 집
- 6. 혼인강좌: 27일 전 9시30분 센터
* 혼인을 앞두신 분은 혼인강좌 수료 후 신부님과 면담해주시시오.
- 7. 비품마련 특별헌금 봉헌액: 이영희-1만5천원, 익명.입태순-각 5만원, 익명, 안재홍-각 10만원, 최순이-2만원, 박일천-60만원 * 소계: 93만5천원 * 누계: 3738만8376원
- 8. 모임: ①제대회(23일 전 10시30분)
②대전회(27일 장엄미사 후)
③꾸리아(27일)
· 천사의 모후-장엄미사 후
· 자비의 모후-후 2시
- 9. 금주 청소: 남노3, 중노1만
차주 청소: 중노2, 3만
- 지난주 봉헌금: 926,970원 □ 교무금: 1,209,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1. 금주 모임 안내: 성모회-오늘 공식미사 후, 장소-유아방
2. 차주 모임 안내: 반장회-8월27일(일) 공식미사 후, 장소-유아방
3. 아가페 수녀님 피정: 8월 21일(월)~25일(금)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무장(원) 피정: 8월21일(월)~23일(수)
4. 첫영성체 대상자 모집: ①교리일시-9월13일(수)~10월13일(금) 화, 수, 목, 금(오후 4시)
②대상-초등부 3학년~6학년
③교재대금-1,200원
④첫날 모임-9월13일(수) 오후 4시
(부모님중 한 분은 꼭 참석바랍니다)
⑤첫영성체일-10월14일(토) 오후 4시(어린이미사)
※ 신청은 교세대담과 함께 교리교사나 사무실에 하시기 바랍니다.
5. 예비자 교리: 매주 일요일 후 5시30분
장소-1회합실
6. 청소 안내: 금주-상아탑
차주-평화의 모후
- ◎ 전례단, 복사단 수련회, 초·중·고 교리교사 MT 무사히 마쳤습니다.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1,962,100원

***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황길형

1. 사무원 피정: 21~23, 나바위
2. 초·중·고 교리교사 피정: 26~27, 나바위
3. 병자 봉성체: 25일(금)
4. 유아 세례: 26일(토) 저녁 7시
5. 빠스카회: 오늘 공식미사 후
6. M.E. 가족모임: 25일(금) 저녁 8시
7. 반젠시오회: 26일(토) 오전 10시
8. 전일을 환영합니다: 김경숙 유스터나(완산반 전일)
금주 전례: 해설-유두석, 독서-이상온 부부
 봉헌-김현덕 가족
차주 전례: 해설-형임순, 독서-이갑규 부부
 봉헌-강영진 가족
성당 청소: 평화의 모후Pr, 순결하신 어머니Pr.
- 지난주 봉헌금: 566,400원 □ 교무금: 799,000원

*** 전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박동진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형

- ◎ 축! 율항검과 동정부부상 건립 제막식-오늘 공식미사 후, 봉헌-유지현(요한) 제작-이영주(마리아), 김진민(마한석재)
- ※ 보좌신부님 영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8월20일)
(영육간 건강을 위해 많은 기도바랍니다)
- 1. 금주: ①바비의 성모Cu. (후 2시)
 ②청년회(후 8시)
- 2. 성모회: 21일(후 8시)
- 3. 성모회: 22일(전 11시)
- 4. 빼엣다회: 23일(전 10시)
- 5. 삼지회: 25일(후 8시)
- 6. 사무장, 사무원 교구 피정: 21일~23일(나바위 피정의 집)
 사무실 휴무
- 7. 감사합니다: 정원 벤치 기증 이영태(요셉)
 감사헌금 62만원(익명)
- 8. 차주: 성마리아 꼬미시움(후 2시)
- 주일 헌금: 2,084,23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봉실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 ◎ 연중 제20주일-주일미사를 권하지 않습니다.
- ◎ 정성스런 기도와 봉헌(주일헌금, 교무금)은 신자의 의무입니다.
- 1. 모임: ①새 영세자 모임, 성가대-오늘 공식미사 후
 ②자모회-다음주일
- 2. 감사: ①성모상과 성모동산 조성을 위한 후원금과 나무(황옥섭, 한동욱, 최상욱)를 주신 분들
 ②초·중·고학생 여름행사 후원-박종민, 안나희(각 5만원) 양수환(3만원) 계-13만원, 누계-133만1천원. 정한모(수박 30개) 최원규(음료수) 신유스티나(음료수, 수박5개) 차량지원-장남진, 최상훈, 문민호, 박준석, 남동선
 ③성모 승천 대축일 행사를 수고하신 분들
- 3. 다음주일은 본당 발전을 위한 2차헌금 있습니다.
- 4. 추석 활동 위령미사: 9월9일(토) 10시-사무실에 접수하세요.
- 5. 교무금은 세대별로 신입하시어 정성껏 봉헌합니다.
- 6. 성당 청소: 금주-구세주의 모친Pr.
 차주-신비로운 장미Pr.
- 7. 금주 전례: 해설-김미남, 독서①이옥동 ②우경숙
 봉헌-남창욱 가정
- 8. 차주 전례: 해설-이춘봉, 독서①양주태 ②이석남
 봉헌-이상울 가정
- 지난주 봉헌금: 352,950원 □ 교무금: 302,00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감상근

- ◎ 주공 아파트로 전입해오신 새 가족 27일 10시30분미사 환영인사 있습니다.
- ◎ 특별강론: 오성기(요한크리스소스토모) 신부
- ◎ 건진성사 대상자 서류 신청: ①건진일자-9월24일 ②신청일자-9월10일까지 사무실에 신청 ③서류신청-건진성사 신청서 1부(사무실에 있음) 타본당에서 세례 받은 신자는 세례증명서 1부 꼭 첨부해서 신청
- ◎ 성령 세미나: 9월11일~16일 저녁 7:30 화-토(저녁 7시미사)
①9월10일까지 사무실에 신청 ②건진성사 대상자는 의무 ③회비-건진성사 대상자 사진대금 포함 5,000원, 일반인 3,000원
- 1. 초·중·고 교리교사 피정: 26일~27일(나바위)
- 2. 평화의 밤: 중·고생 예술 발표회, 21일 저녁 6시~9시
- 3. 교도수원회 월례미사: 21일 전 10:30 섀타 3층
- 4. 봉성체: 25일 전 8시(사무실에 신청)
- 5. 회의: 임마누엘, 한빛회-오늘 공식미사 후
 울뜨레아, 풍송회-27일 공식미사 후
- 6. 혼인강좌: 27일 전 9:30 섀타-회비 각 일만원
- 7. 감사초 판매: 1,800-10,000원
- 8. 사무장, 사무원 피정: 21일~23일(나바위)
- 9. 축복미사: 22일 저녁 8:30 주공APT 503동 1202호 김부영(바울라) 댁
26일 오전 11시 주공APT 506동 1203호 이종두(호노라도) 댁
- 10. 개업 축복미사: 24일 전 10시 주공APT 302동 정분 맞은편 한진조명 이상숙(안셀라) 댁